

# YONHAPI@ष्टेबाट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Cover\_Story

# Undeniable **Passionate**

Peninsula 혼을 앗아 간 열정의 반도

■글/임동근 기자, 사진/김주형 기자, 협찬/주한 스페인관광청 한국대표

정신을 잃었다. 혼을 빼앗겼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스페인의 대지와 해안을 뒤덮은 하얀 태양 아래서는 누구나 그랬을 것 같다.

까맣게 살을 태워버릴 것만 같던 한낮의 열기는 밤이 까맣게 깊어서도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정, 낭만, 매력, 아름다움 등 온갖 단어를 붙여도 설명할 수 없는 스페인은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깊이 이로새겨졌다.



도심을 뒤덮은 코발트빛 하늘과 햇살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예술작품 같은 건축물들은 마드리드를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도시로 만들고 있다. 그곳의 모든 것들이 천국보다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해 보여 스페인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마드리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을 갖게 해 달라'는 기원을 한다고 한다.



마드리드의 레알 왕궁(Palacio Real)은 옛 스페인 왕국의 위세와 화려함을 보여준다. 왕궁에는 2천 800개에 이르는 방이 있으며, 내부를 장식한 화려한 천장벽화와 샹들리에, 도자기, 고야와 벨라스 케스 등 거장의 회화 작품에는 저절로 입이 벌어진다. 왕궁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선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



유로(Euro)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면서 유럽인들은 스페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꿈꿨다고 한다. 시에스타(Siesta, 낮잠)와 밤늦게까지 여흥을 즐기는 여유로운 일상이 그들의 삶에도 접목될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풀었던 기대는 이내 사그라져버렸다. 반대로 보통 유럽인들의 생활 방식 이 스페인 사람들을 지배했다. 스페인 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와 업무 시간을 맞추고 생산성을 높이 기 위해 2005년 12월 관공서에서의 시에스타를 폐지해버렸다.

스페인은 서로 어슷비슷한 모습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문화와 풍경을 품고 있다. 풍경은 황량하고 메말라 있으며, 스페인 사람들은 밤이 깊어서도 다른 유럽인들과 달리 거리를 활보하고, 새벽까지 바에서 술을 들이켠다.

대도시에서의 달콤한 시에스타는 사라져버렸지만 아직도 여행자들은 스페인을 최고의 여행지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유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유와 자유, 열정, 강렬한 태양을 바로 스페인에서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구시가에서의 숨은 보물찾기

마드리드(Madrid)에는 '마드리드에서 천국으로(De Madrid al Cielo)'라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천국보다 마드리드가 더 만족스러운 곳'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마드리드의 도심을 뒤덮은 코발트빛하늘과 햇살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오래된 건축물들, 영혼을 두드리는 미술 작품, 신선한 휴식과 자유로움을 전해주는 밤의 여흥까지 그곳의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스페인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마드리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을 갖게 해 다오'라는 속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마드리드(Madrid)는 해발 646m의 카스티야 평원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유럽 국가의 수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도시 위를 뒤덮은 코발트빛의 하늘은 첫인상을 강렬하게 각인시킨다. 관광객들에게 멋진 인상을 전하는 이곳의 환상적인 하늘은 스페인 화가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어 캔버스에 담도록 했다.

스페인의 전성기였던 1561년 펠리페 2세는 마드리드를 수도로 정했다. 그는 마드리드를 스페인은 물론 유럽의 중심 도시로 변화시키려 했다. 이후 카스티야의 작은 도시는 발전을 거듭했고, 이내 강대한 제국의 중심 도시로서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1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변화의 모습들은 마드리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16~17세기의 구

불거리는 좁은 골목길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빼곡한 구시가, 우아한 건축물과 시원스럽게 뻗은 도로가 인상적인 18~19세기의 구시가 주변, 세련된 현대의 건물들이 들어선 외곽 지구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아침나절,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마요르 광장(Plaza Mayor)은 평온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광장의 카페들은 탁자와 의자를 배열하며 손님맞이를 시작했고, 음식 배달용 트럭들만 광장의 이곳저곳에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이었다. 뜨문뜨문 모습을 드러낸 관광객들이 한가롭게 사진을 찍으며 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직사각형의 광장을 둘러싼 건물들은 모두 발코니를 갖추고 있었고, 경사진 지붕 위쪽으로는 뾰족한 탑들이 솟아올라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주었다. 광장 한쪽 건물의 중앙 벽면은 우아한 여인과 복스러운 모습의 어린이 등을 그린 그림들로 화려하게 장식돼 있었다.

이곳 광장에서는 한때 이단자들을 심문하는 가톨릭의 종교재판이 진행됐으며, 잔혹한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고 한다. 즐거움과 여유가 감도는 지금의 광장에서 어두웠던 과거의 그늘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중앙에는 광장 건축을 명령했던 펠리페 3세의 기마상이 늠름하게 서 있었다. 밤이되면 이곳 광장은 여유롭고 낭만적인 스페인의 밤 문화를 만끽하려는 이들로 축제처럼 북적인다.

광장 서쪽의 뒷거리에는 마드리드에서 가장 오래된 '루이스 칸델라스(Luis Candelas)'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다. 동굴 모양의 실내가 이색적인 곳으로 상호는 '스페인의 로빈 후드'라 불렸던 의적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양도 많고 맛도 훌륭한 다양한 그릴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가자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자꾸만 시계를 수백 년 전쯤으로 되돌리고 있었다.

#### 제국의 영화 간직한 레알 왕궁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로 2008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독일의 '전차군단'을 꺾고, 44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했다. 경기가 끝난 후 시상식장에서 선수들은 후안 카를로스스페인 국왕을 힘껏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스페인 국왕은 정치적 권력이 거의 없는 상징적인 존재지만, 이렇듯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은 깊은 편이다. 그의 일거수일투족과 왕가의 이야기가 거의 모든 매체에 매일 등장할 정도이다.

구도심 서쪽 끝의 '레알 왕궁(Palacio Real)'은 마드리드 왕립 궁전으로 스페인 왕실이 1931년까지 사용했던 곳이다. 원래 마드리드의 방어를 담당했던 요새가 있던 자리였으나 화재로 소실되자 펠리페 5세가 명해 1738년에 왕궁이 건축됐다. 왕궁은 왕국의 영화와 위풍당당함이 드러나는 웅장한 외관과 화려한 실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2천800개에 이르는 왕궁의 방들 중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50여 개에 불과하다. 내부에 들어서자 벽과 천장의 눈부시게 화려한 장식과 벽화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화려한 금 세공품을 비롯해 샹들리에, 태피스트리, 도자기 등의 장식은 예부터 이어지고 있는 왕가의 소장품이고, 고야와 벨라스케스 등 거장들의 회화작품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거대한 거울이 방을 장식한 공식 알현실과 중국 양식으로 호화롭게 꾸며진 '가스파리니 홀', 벽과 천장 모두를 흰색과 녹색의 고급 자기로 꾸민 '자기의 방' 등 발 딛는 공간마다 눈이 휘둥그레지게 한다.

레알 왕궁 바로 옆으로는 왕궁과 어울리는 건축 양식과 빛깔의 라 알무데나 대성당(La Almudena Cathedral)이 자리하고 있다. 199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축성한 성당으로 안쪽에는 그의 인자한 모습을 표현한 동상이 서 있다. 성당 뒤편의 계단을 통해서는 성당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데 마드리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레알 왕궁에서 살짝 북쪽으로 이동하면 스페인의 명물인 '돈키호테'를 볼 수 있는 스페인 광장이 있다. 관광객들은 말 탄 돈키호테와 당나귀에 오른 산초의 동상 옆에 서서 차례를 기다려가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돈키호테 동상 뒤쪽의 탑에는 돈키호테를 창조해낸 세르반테스가 앉아 행인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 여유로운 휴식 공간 레티로 공원

구도심 동쪽에는 한가하게 산책을 즐기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레티로 공원(Parque del Retiro)이 자리한다. 이곳은 원래 궁전에 딸린 정원으로, 1632년 펠리페 4세에 의해 궁전과 함께 만들어졌다.

아치와 천사의 조각상이 멋스러운 알칼라 문(Puerta de Alcal? 옆으로 난 출입구로 들어서자 깔끔한

모습의 정원이 나타났다. 커다란 나무들이 길가에 도열한 산책로를 지나자 넓게 트인 공간에 호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호수에는 작은 보트들이 떠 있고, 사람들은 보트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대화를 나누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레티로 공원은 혼잡하고 열정적인 마드리드의 도심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한가롭고 편안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호수 남쪽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벨라스케스 궁전'과 전체가 유리로 된 '크리스털 궁전'이 있다. 크리스털 궁전은 온실처럼 보이는 곳으로 겨울철에는 특별 미술전시회나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마드리드는 푸에르타 델  $\pm$ (Puerta del Sol, 태양의 문)을 중심으로 도로가 방사형으로 뻗어 나간다.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모든 도로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푸에르타 델  $\pm$ 의 한쪽 바닥에서는 스페인의 모든 도로가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 $\pm$  0'라는 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도 푸에르타 델 솔은 마드리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드리드 각지를 잇는 다양한 노선의 버스가 이곳에서 출발하고, 지하철 노선도 3개가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또 기념품점 과 옷가게, 액세서리 상점, 식품점 등 다양한 가게들이 자리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카페 와 바가 많아 광장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밤이 내린 푸에르타 델 솔은 낮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반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던 노란 빛깔의 건물들은 환하게 불을 밝혀 아름다움을 뽐냈고, 건물 위로 솟은 시계탑과 가로등은 은은한 빛깔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조금은 한적해 보였던 낮의 풍경은 사라져버리고, 평일 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거나 거닐며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고 난 후 마드리드는 새로운 모습으로 깨어났다. 낮보다 더한 활기가 광장과 도로와 골목을 지배했고, 고풍스러웠던 구도심의 레스토랑과 술집들은 흥청거렸다. 과거의 영화를 보여주는 전통 유산과 열정의 문화, 활기찬 밤의 여흥은 서로 뒤섞이며, 마드리드를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글거리던 태양이 힘을 잃어갈 무렵, 열정적인 밤이 깨어난다. 플라멩코(Flamenco) 전용 극장인 타블라오(Tablao)의 무대에서는 안달루시아 집시들의 슬픔과 기쁨을 거친 목소리의 노래와 강렬한 리듬, 무용수의 격정적인 몸짓에 담은 공연이 마련되고, 거리 곳곳의 타파스 바(Tapas Bar)에서는 밤늦도록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술자리가 이어진다. 스페인 여행의 진정한 묘미는 밤에 맛볼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밤만 되면 만성 불면증에라도 걸린 듯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와 카페, 레스토랑, 술집을 가득 채운다.

특히 간단한 음식을 시켜놓고 식사나 술을 즐길 수 있는 타파스(Tapas) 바는 매일 밤 축제라도 벌어진 듯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스페인의 진정한 밤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타파스 바 순례에 나서보자.



지중해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바르셀로나(Barcelona)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 중 가장 활기차다.

파도가 넘실대는 해안과 수많은 인파와 예술가들로 생기가 넘치는 람블라스(Ramblas) 거리,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건축물과 환상적인 공원 등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낭만적인 지중해는 바르셀로나 연안에서 뜨겁게 변한다.





#### **Barcelona Harbour from Monument to Columbus**

푸르고 평온한 지중해는 바르셀로나에서 자유로움과 열정의 바다로 변화한다. 항구에는 무한한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뜨거운 태양 아래 벤치의 연인들은 진한 입맞춤으로 열정을 불태운다.

콜럼버스 기념탑 꼭대기에 오르면 활기와 자유와 열정이 혼합된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운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 미각을 살려주는 환상의 미식 여행

스페인 요리는 지방에 따라 재료와 맛이 모두 상이하다. 북부의 바스크와 카스티야 지방은 삶은 요리, 마드리드를 비롯한 중앙은 구이,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은 튀김 요리를 즐겨 먹는다. 음식재료면에서도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은 물론 비둘기, 메추리 등 조류와 유럽인들이 그다지 즐기지 않는 문어와 오징어, 돼지 태아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다. 스페인에는 전 세계인의 미각을 자극할만큼 맛깔스러운 요리들이 넘쳐난다.



#### 피카소·달리·미로, 3대 거장을 만나다

스페인은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활동했던 곳이다. 고야, 벨라스케스 등 고전주의 화가부터 피카소, 달리, 미로 등 현대의 화가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화풍으로 지금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들의 작품을 배태한 본향이다. 특히 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면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 미술관(Reina Sofia National Museum)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 **Information Spain**

지리 '이베리아 반도'라 불리는 유럽의 서쪽을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은 불과 14 km 거리의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 대륙과 마주하고 있으며, 동쪽 으로는 피레네 산맥이 프랑스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유럽에서 스위스와 오스트 리아 다음으로 산이 많은 나라로, 해발 646m에 위치한 마드리드는 유럽의 대도 시 중 해발 고도가 가장 높다.

기후 눈 덮인 피레네 산맥부터 푸른 초 원이 펼쳐진 갈리시아, 과일 나무가 숲 을 이룬 발렌시아, 사막지대인 알메리아 인다. 마드리드는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은 드물지만 춥고, 여름에는 한낮 기온이  $40^{\circ}$ C까지 치솟는다. 그러나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태양을 피하면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바르셀로나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뜨겁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포근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문화 기후가 온화하고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른 유럽 사람들보다 늦게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활동한다. 식사 시간도 한국보다 늦어 점심 식사는 오후  $2\sim4$ 시에 먹으며, 저녁 식사는 오후 9시나 10시쯤에 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스페인 사람들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시에스타(낮잠)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에 서는 휴일이나 주말을 제외하고는 시에스타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시에스타를 잘 지키는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이 시간 동안 상점들과 관광지가 문을 닫는다. 일요일이나 휴가철에는 도심 상점도 쉬는 곳이 많으므로 이 때 여행할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고 돌아보는 것이 좋다.

**시차, 통화, 전압** 시차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8시간(서머타임 기간에는 7시간) 늦다. 통화는 유로 (Euro)를 사용하며, 9월 19일 기준으로 1유로는 약 1천650원이다. 전압은 220V, 50HZ이며, 플러그는 한국과 같은 2핀을 사용한다.

전화 스페인의 국가번호는 34이다.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려면 00-82를 누른 후 지역이나 휴대전화의 앞자리에서 0을 뺀 나머지 번호를 누르면 된다. 호텔 객실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외선 번호를 누른 후 이용한다. 국제전화카드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할 경우에는 단위에 관계없이 유로화 동전을 집어넣은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가 끝나면 동전은 반환된다.

항공편 대한항공이 인천-암스테르담-마드리드 직항편을 주 3회(수, 금, 일요일) 운항한다. 오전 8시 4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5시 10분 마드리드에 도착하며, 귀국편은 오후 6시 2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후 3시 55분에 인천에 닿는다. 마드리드 바라야스(Barajas) 공항에는 총 4개 터미널이 있으며, 대한항공 승객은 제1터미널을 이용한다.

여행 시 주의할 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와 같은 대도시에는 도둑이나 소매치기가 많다. 거리에서 이동할 때 가방, 카메라 등 모든 소지품을 반드시 손으로 잡고 있도록 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도 반드시 몸에 걸고 있거나 착용하도록 한다. 도둑이나 소매치기가 근처를 지난 흔적도 없이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귀중품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면 부주의 해질 때까지 따라다니다 훔쳐가기도 한다. 도난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여권이나 큰돈, 귀중품은 되도록 호텔에 두고 관광지를 돌아보도록 한다. 여행자보험을 들고,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는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도난 확인 서류(Police Report)를 받도록 한다. 스페인어에 능숙하지 않다면 영어를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하고, 도난 물품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 둘러볼 곳

#### 마드리드와 주변

라 알무데나 대성당(La Almudena Cathedral) 신 고딕양식으로 건축돼 199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해 축성했다. 원래 1879년 뾰족한 첨탑과 딱딱한 모습의 고딕양식 성당으로 설계됐으나 바로 옆의 레알 왕궁과의 조화를 위해 외관의 모습을 바꾸었다고 한다. 관광객들은 성당의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데, 거대하고 엄숙해 보이는 12사도의 석상들이 자리한 전망대에서는 마드리드 시내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구시가 대부분과 주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프로축구팀 레알마드리드의 전용 경기장도 볼 수 있다.

성 이시드로 박물관(Museo De San Isidro)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마드리드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이 지역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과 유적을 전시해 놓았다. 고대의 항아리와 접시, 무기에서부터 로마시대의 모자이크, 스페인의 중심 도시로 성장한 마드리드의 모습과 17세기 마드리드의 모형,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예술가들에 이르기까지 마드리드의 다양한 역사를 엿볼 수 있다. 마요르 광장 남서쪽의 성 안드레스 광장(Plaza De San Andr럖)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다. 화~금 오전 9시 30분~오후 8시/토·일 오전 10시~오후 2시에 문을 열고, 월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34-91-366-7415

데보드 신전(Templo de Debod) 스페인 광장에서 도로를 건너 맞은편 언덕을 오르면 볼 수 있는 2천 200여 년 전 이집트 나일강변에 있던 신전이다. 1960년에 아스완 댐 건설로 유적들이 침수될 위기에 처하자 유네스코는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고, 스페인은 아부심벨 신전을 구하는 데 원조를 했다. 이집트 정부는 1968년 감사의 표시로 이시스 여신을 위한 이 신전을 선물했다. 스페인에서 만나는 이집트의 고대 유적은 특별한 느낌을 전한다.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돼 있으며, 신전 뒤편에서 모르고로 보내의 게상 양고의 공격을 될 수 있다.

사자(死者)들의 계곡(Valle de los Ca뭗os) 마드리드 근교 엘 에스코리알(El Escorial) 왕궁의 북동쪽 10 km 지점에 위치한, 바위산을 250 m 깊이로 뚫어 만든 성당으로 산 정상에는 높이 152.4 m의 십자 가가 세워져 있다. 프랑코의 독재시절 스페인 내전 전사자 4만여 명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정치범 2만 명을 동원해 16 년에 걸쳐 건설한 성당이다. 내부의 천장 벽화와 장식들은 아름답고 경이롭지만 조명이 어두운 탓인지 엄숙하면서도 침울한 분위기가 감돈다. 프랑코가 사후에 이곳에 안치된 탓에 논란이 일기도 한다. 방문객들은 리프트를 타고 십자가의 가로대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산 로렌조 데 엘 에스코리알(San Lorenzo De El Escorial) 펠리페 2세의 웅장한 회색빛 궁전으로 꾸 밈이 전혀 없는 엄격한 절제미를 풍긴다. 사각형의 거대한 건축물은 궁전과 성당, 수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에는 펠리페 2세의 침실과 왕실의 묘, 천장의 프레스코화가 화려한 도서관, 스페인을 비롯해 플랑드르, 이탈리아 화가들의 명작들이 있는 미술관 등이 있다. 내부 공간의 창문을 통해 깔끔하게 단장한 정원과 주변 경치도 볼 수 있다.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4\sim9$ 월은 오전 10시 $\sim$ 오후 6시 $(10\sim3$ 월은 오후 5시까지)에 개방되며, 공휴일에는 닫는다. www.patrimonionacional.es

톨레도(Toledo) 카스티야-라만차 지방에서 가장 방문할 만한 관광지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문화 유산이 풍부하며, 스페인 남부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때 기독교 인과 이슬람교도, 유대교인이 함께 모여 살았던 곳으로 좁고 구불거리는 거리를 거닐다 보면 이슬람 사원과 유대교 회당, 르네상스식의 궁전 등이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은화가 엘 그레코가 머물며 종교화와 인물화 등을 그렸던 곳으로 곳곳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바르셀로나와 주변

라 보케리아(La Boqueria) 시장 람블라스 거리의 중간에 위치한 시장으로 각종 과일과 채소, 소시지, 하몽, 올리브유 등 다채로운 먹을거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관광객이 대부분이며 꼭 물건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둘러보는 것만으로 활기찬 재래시장의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다. 고딕지구, 람블라스 거리, 해안지구 등 바르셀로나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다가 잠시 들러 간단한 요기를 하기에도 좋다.

몬주익(Montjuic) 바르셀로나 남쪽 무역항 뒤편에 솟아 있는 언덕으로 고고학 박물관과 호안 미로 미술관, 카탈루냐 국립 미술 박물관, 몬주익 성,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타디움 등이 있다. 스페인 전역에 걸친 유명한 건축물의 복제품을 모아 놓아 각 지방의 양식을 볼 수 있는 스페인 마을, 음악 공연과 축제의 무대로 활용되고 있는 스페인 광장 등 현대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구엘 저택(Palau Guelll) 가우디가 1889년에 평생의 후원자였던 구엘을 위해 설계한 저택으로 가우디를 세계적인 건축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좁은 도로의 한가운데 있어 외부에서는 건물전체를 감상하기 힘들지만 아치형 대문과 발코니 등을 통해 그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들여다볼 수있다. 옥상의 굴뚝은 다양한 빛깔의 타일로 장식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연극과 관련된 무대장식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람블라스 거리의 레이알 광장 맞은편의 좁은 도로 왼쪽에 위치해 있다. 월~토요일에 개방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다.

구엘 공원(Park G웕ll) 가우디의 작품 중 가장 화려한 것으로 알려진 공원으로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전한다. 입구에는 과자로 만든 집 같은 건물 두 채가 서 있고, 세라믹으로 만든 도마뱀 분수가 있는 계단을 오르면 커다란 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광장 바깥쪽으로는 휴식을 취하며 마드리드 시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불구불한 구조의 화려한 타일 벤치를 만들었다. 벤치는 타일로 만들어졌지만 앉아보면 굉장히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작품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어 가우디의 건축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시체스(Sitges) 바르셀로나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바닷가 휴양지이다. 바닷가에는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 화사하고 예쁜 모습의 건물들과 성당 등이 들어서 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지중해의 정취를 마음껏 맛보고 자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바르셀로나-산츠 (Barcelona-Sants) 기차역에서 30분 정도 걸리며 왕복 요금은 5.2유로이다.

<u>▲ top</u>	

